

나주시, 생장촉진 없는 ‘고품질 배’ 재배 확대한다

기후 대응 촉진제 무처리 교육
병해충 종합 관리 등 중점 지도
‘천년 이음’ 지난해 187톤 출하
“배 수출량 전국 1위 명성 유지”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나주시가 생장 촉진제를 사용하지 않는 고품질 나주배 재배 확대를 위해 농가 지도에 나서고 있다.

16일 나주시는 최근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APC)에서 나주배 품질보증제 사업에 참여하는 배 농가주 100여명을 대상으로 생장촉진제 무처리배 재배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이상 저온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원 관리, 병해충 종합 관리, 생장촉진제 무처리배 재배 기술 등을 중점으로

진행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 사항에 대해 안내하며 지원 시책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나주시장이 품질을 보증(품질보증제)하는 ‘천년 이음 나주배’를 생산, 선별, 유통하고 있다.

천년 이음 나주배는 생장촉진제 무처리배 생산 농가와 계약을 통해 당도 12브릭스 이상, 색깔, 신선도 등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별한다.

이에 지난해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 대형 백화점, 마트, 온라인 쇼핑몰에 약 187톤을 출하하는 등 고품질 프리미엄 배 브랜드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시는 고품질 나주배 세계화를 목표로 미국, 베트남, 캐나다 등 7개국 현지 유통

업체와 현재까지 3870만달러(약 562억원) 규모의 농수산물품 수출 협약을 체결하며 지난해 전남도 농수산물품 수출평가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대만, 베트남 등 15개국에 나주배 3359톤이 해외로 유통되며 배 수출량 전국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나주배가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고품질 명품 과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농가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교

육, 정책을 통해 나주배 명성 회복에 앞서는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나비축제’ 대비 환경정화 활동
함평군 산불면, 민관합동 대청소

함평군 산불면이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를 앞두고 깨끗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한 일제 대청소에 나섰다.

16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산불면과 산불면 정년회,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등에 소속된 70여명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불면들기’의 일환으로 민관 합동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정화활동에서는 산불면 진입로부터 월천리 일대까지 약 15km 구간을 단체별로 나눠 버려진 생활 쓰레기와 불법 현수막을 집중 수거하며 지역 환경 보호와 청결한 거리 조성에 힘썼다.

군은 이번 대청소를 통해 축제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수영 산불면장은 “바쁜 와중에도 정결한 산불면을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산불면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 정비와 공동체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상반기 장학생 129명 선별
화순장학회, 장학금 지급

(재)화순장학회는 2025년 상반기 화순장학생으로 총 129명을 최종 선발하고 최근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은 △중학생 41명 △고등학생 32명 △학교 밖 청소년 7명 △대학생 49명 등으로 다양한 교육 단계와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고르게 포함됐다.

중·고등학생은 학교장 추천과 예능 특기 분야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중·고교 과정의 학업 지속 의지를 지닌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했다. 대학생은 성적 우수자와 예능 특기생 등 여러 기준을 고려해 균형 있게 선발했다.

장학금은 중학생에게 50만원,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는 각 100만원이 지급됐으며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납부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 금액만 지원했다.

조미화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함평군 산불면 직원 및 청년회,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원 등이 지난 10일 월천리 일원 15km 구간에서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하계 전략 작물 직불금 신청

함평군이 벼 재배면적 714.9ha 감축을 목표로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6일 함평군에 따르면 전략 작물 직불제(하계작물),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벼 재배면적 조정제도 등 각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5월30일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전략작물 직불제(하계작물)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벼 재배면적 조정제도 △총체벼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등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전략작물 직불제’는 벼 재배면적 축소 및 타작물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벼를 재배하던 논에 두류, 가루쌀, 조식료 등 하계 전략 작물을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품목별 지원 단가는 △하계 조식료(총체벼, 수단그라스 등) 500만원/ha △가루쌀·두류 200만원/ha △옥수수·깨 100만원/ha △동계 밀·조식료를 재배했던 필지에 하계 두류·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100만원/ha 등을 추가 지급한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벼 대신 식용 옥수수, 깨, 고구마 등 다른 소득 작물을 재배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식용 옥수수·깨 100만원/ha, 하계

조식료 50만원/ha, 그 외 작물은 200만원/ha를 지원받을 수 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도’를 함께 신청한 참여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등 혜택을 제공해 벼 재배면적 감축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군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이행과 함께 고품질 조식료 생산을 위한 ‘총체벼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도 추진 중이다. 현재 총체벼 재배면적 133ha를 확보해 하계조식료 재배 면적 확대에 총력을 쏟고 있다.

총체벼 사업 참여농가는 △전략작물 직불금 단가 상향 △장려금 지급 △운송비 지원 △전량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아 200평당 약 55만2000원의 추가 수익과 경종 농가 및 축산농가 소득 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함평=신재현 기자

농협중앙회, 농·축협 시설물 건립·재난안전 교육 실시

실무 중심 업무 이해도 향상

농협중앙회는 지난 15일 농협광주본부 대강당에서 호남권 농·축협 임직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농·축협 시설물 건립 및 재난안전 교육’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난사고로부터 임직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고품질 시설물 건립을 위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

다.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실시된 이 교육은 5년 동안 총 1500여명의 전국 농·축협 임직원이 참여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재난안전 대응관리 방안 △안전관련 법령 및 지도 등 재난 안전 관련 정보 △계약 및 공사관리 실무 △부동산 개발 및 건설이슈 안내 등 시설물 건립 관련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농·축협 임직원들은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안전관련 법령과 대응 관리 방안을 쉽게 이해하고 사업계획부터 계약·공사 관리까지의 건설 전반적인 과정을 학습했다. 이와 함께 질의시간을 통해 현업에서 겪은 어려움을 해소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안전을 동반한 농협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 교육을 확대해 임직원의 재난 대응 및 시설물 건립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진용 기자

민관 합동 집중안전점검
곡성군, 6월 13일까지

곡성군은 일상생활 위험 요소를 해소해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오는 6월13일까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집중안전 점검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집중안전점검은 사회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노후·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고 예방 활동이다.

이번 점검은 시설유형별 안전점검 가이드를 활용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 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공장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통시장,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 최근 주요 사고·언론 분석을 통해 중앙부처 선정 기준에 따라 위험시설 및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 58개소를 우선 선정했다.

군은 안전점검과 함께 군민 참여 기반의 자율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점검 신청제’도 운영한다.

군민 누구나 점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설은 신청할 수 있으며 군민들의 자발적인 집중안전점검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안전 점검표를 배부할 예정이다. 곡성군 홈페이지에도 게시돼 누구나 점검할 수 있도록 공지해 놓았다.

곡성=김대영 기자

죽림저수지에 평림댐 용수 지원
한국수자원공사 전남북부권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전남북부권지사가 장성군 삼계면에 위치한 죽림저수지의 수위 저하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지사에서 관리하는 평림댐의 용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16일 한국수자원공사 전남북부권지사에 따르면 평림댐은 죽림저수지 하류에 위치한 용수댐으로, 장성군을 비롯해 담양군, 함평군, 영광군에 생활용수 등을 공급하는 전남 북부권 지역의 중요 수자원 기반시설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 중인 죽림저수지가 복통 누수로 인해 수위가 급격히 저하됨에 따라 삼계면 일대 농경지에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 전남북부권지사에서는 평림댐 용수를 죽림저수지로 공급해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평림댐에서 죽림저수지로 공급되는 용수는 약 26만㎡다. 한국수자원공사 전남북부권지사는 취수장정, 댐 내 취수지점 설정, 관로 부설을 위한 부지 제공 등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전 과정을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홍수통제소, 전남도, 장성군,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

김선웅 한국수자원공사 전남북부권지사는 “지역민이 용농기 농업용수 사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평림댐 용수를 죽림저수지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지역민이 안정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진용 기자